

구약논단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한 동구(평택대)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사 개혁	224
본 연구는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사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짧게 개관하였으며, 이어 히스기아 왕과 요시아 왕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빛에 군대의 구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신명기 왕의 법에 언급된 군사적 금령(신 17: 16a)의 의미를 살펴본다.	
Han, Dong-Gu The Military Reform in the Deuteronomic Movement	224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사 개혁

한 동구 | 평택대

1. 서론

히스기아 왕은 앓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였으며,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이후 요시아 왕도 앓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군사력의 증강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신 17장 14-20장(특히 신 17: 16a)에서는 “**다만 그는 자신을 위해 말들을 많이 갖지 말라.** 말을 많이 갖기 위해 그는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한다. 이는 명백히 군사력 증강을 반대하는 규정처럼 보인다.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도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였으나, 신명기의 법규정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견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군대는 소극적인 관점에서는 국가를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군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정적으로는 약소국을 침공하는 수단이며, 강력한 군사력은 국제 관계에서 자신감을 과시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군대, 군사력 및 전쟁의 참여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한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갖게 한다.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은 더 커진다. 그 한 예로 사울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그가 왕으로 오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실제 역사적으로도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다(참조 삼상 11장).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자는 왕뿐만이 아니다. 일반 군인들도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군대와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된다.

신명기 개혁 운동에서는 한편으로 당면한 국가적 위기, 앗시리아의 침공과 앗시리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극복하는 데 치중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와 전쟁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군대의 개혁을 그들의 개혁 정신과 부합될 수 있도록 진행했을 것이다.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국민 총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군대를 개혁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직업 군인들에 의한 엘리트 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 부대의 중요성을 높이도록 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대 개혁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신명기 법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역사적 개관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갖게 된 것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사사 시대 전(前)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은 주로 방어 전쟁이었지, 정복 전쟁은 아니었다.¹⁾ 사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거의 무장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농민들이 잘 무장된 가나안 군대²⁾와 싸워 이긴 승리를 노래하였다. 사울 왕권은 여전히 각 지파에서 징집된 국민 부대(Heerbann)에 기초하고 있었다.

다윗은 옛 국민 부대와 함께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삼하 15: 18f.: 23: 13ff.: 15: 19ff.)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군대 조직의 전환을 그는 그의 통치의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이 부대의 군사적인 의의는 물론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1) 여호수아에서 묘사된 정복사는 실제 역사적인 상황의 묘사라기보다는 후기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적 서술로 보아야 한다.

2) 삼상 13장 19-20절을 참조하라.

다.3) 직업 군인 부대만이 오직 정치적-군사적 힘(권력)이 되었다. 이 부대는 점점 더 커졌고, 또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시 정비되었다. 즉 전(全) 지파에서 징집된 국민 부대와 직업 군인 부대 외에 전차 부대(왕상 9: 15, 17-19; 10: 26, 왕상 10: 28f.)가 창설되었다.4) 솔로몬은 전차 부대를 계속 창설하여 예루살렘 왕의 주변이나 국경 도시에 배치했다.5) 이 도시들은 정치 교통상 중요한 평원 지역에 위치하였다.6)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국민 부대(보병)를 다시 소집해야 했다(왕상 12: 21-22). 군사령관 오므리와 그의 병사들(보병)이 블레셋 지역에 속한 길돈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도 전차 부대의 사령관 시므리는 수도 다르자에 머물러 있었다(혹은 머물러 있어야 했다).7)

왕상 20장 23ff.절에서 이스라엘의 전투 부대는 주로 보병인데 반하여, 아람의 전투 부대는 전차 부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전투 부대의 경우, 야전에서 사령관과 왕(왕이 야전 사령관으로 전투에 참여했을 경우)만이 전차로 무장한다. 이는 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근위대의 전차 부대가 전투에 한 번 투입되었다.8)

이러한 군 조직은 기원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직업 군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부대의 존재 유무 및 그 규모는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기원전 745년에 디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745-727년)가

3) 삼하 20장 23절; 23장 8-39절을 참조하라. W. Schottroff, *Friedensfeier*, 85-86쪽을 참조하라.

4) 왕상 10장 26절 = 대하 1장 14절, 왕상 5장 6절 = 대하 9장 25절 위 두 본문에서 언급된 숫자의 신빙성은 대단히 의문시된다. 이에 대하여 W. Thiel, "Soziale Auswirkungen der Herrschaft Salomos," T. Rendtorff(Hg.), *Charisma und Institution*, (Gütersloh 1985), 297-314쪽을 참조하라.

5) 하술, 므깃도, 게셀, 베히론, 바알랏, 다드몰(왕상 9: 15-19) 등이다.

6) 쉽게 국경 지역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시들이다. 이로부터 말과 전차로 무장하여 이 지역에 배치된 솔로몬의 병사들의 과제가 이 지역 일대를 잘 감시하는 것이라고 추론해 낼 수 있다. 이 도시에 배치된 전차부대의 과제가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의 공격에 대비한 영토방위 성격을 가졌다고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중요 과제는 솔로몬에 의해 정복되어, 그의 제국에 합병된 지역을 통제하고, 이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7) 이 때에 전차부대의 사령관 시므리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웠다. 결국 그는 반란을 일으켰다. 왕상 9: 15, 17ff.; 20: 26.

8) 왕하 8: 20-22.

칼라흐(Kalach)에서 (신)앗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시리아-팔레스타인은 반 앗시리아의 기운이 감돌았고, 기원전 733년에는 시리아-이스라엘 동맹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때 유다의 왕은 요담(기원전 742-734년)이었다. 시리아-이스라엘 동맹 전쟁 초기에 유다 왕 요담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기원전 734-714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당시의 유다의 군대의 구조와 군사력의 규모를 가늠할 자료는 유감스럽게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⁹⁾ 분명한 것은 엄청난 외침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국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유다의 군사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히스기아 및 요시아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군대 개혁

1) 히스기아 왕 시절의 군대 상황과 군대 개혁

기원전 8세기 후반세기 시리아-팔레스타인에서는 반 앗시리아 저항 운동과 독립 투쟁으로 요동쳤다. 기원전 705년에 앗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죽고, 산헤립이 왕이 되자, 유다 왕 히스기아는 조공을 중단하고, 반 앗시리아 동맹군의 맹주가 되어 저항 운동을 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아의 반 앗시리아 독립 투쟁과 개혁 운동은 철저한 준비 속에 단행된 것이었다.¹⁰⁾

히스기아 왕은 무엇보다 먼저 친 앗시리아 궁중 내각을 개혁하여 반 앗시

9) 다만 역대기에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웃시야와 시절 유다는 비교적 강한 군대를 보유한 것 같다(대하 26: 6-9, 11-15). 대하 26장 6-8절의 전쟁 보도는 웃시야 시절의 역사적 전승들과 역대기 사가의 역사이해가 결합된 보도로, 웃시야 시절의 역사적인 군사적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하 26장 11-15절에서 15a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대기 사가의 언어로 기록된 역사이해로 웃시야 시절의 역사적인 군사적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도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여, 강한 군대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대하 27: 3-4, 5-6). 대하 27장 3-4절과 5-6절 역시 요담 시절의 역사적인 군사적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과 전쟁 보도의 역사성 검토와 관련하여 요시아와 요담 시절의 군사력의 규모- 특별히 요담 왕의 보도와 관련하여 -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리아-이스라엘 동맹군이 자신의 의지대로 유다의 왕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전쟁 중에 왕이 되었으므로, 이전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하 28장 5-6, 8절에서는 시리아-이스라엘 동맹 전쟁에서 “용사 십이만 명”이 전사했다고 보도하나, 이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하 28장 5절은 왕하 16장 5절과 병행하는 역사적 보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포로의 수를 언급한 대하 28장 6-8절은 역대기 사가의 언어 기록된 후기의 보도로 아하스 시절의 역사적인 군사적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10)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B&A, 2007), 49-88쪽.

리아 내각, 즉 '소위 신명기 개혁운동 집단'으로 바꾸었다.¹¹⁾ 이로써 기원전 705년에 히스기야 왕은 반 앗시리아 동맹에서 선봉에 설 수 있었다.¹²⁾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동원하여(아마도 국민 전체를 동원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을 뿐 아니라, 무기를 개선하여 군사력을 증대시켰다. 역대기의 보도에 따르면, 앗시리아의 침공에 앞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한 방비를 하였다. 대하 32장 5b절의 보도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많은 무기, 즉 무기(창)와 방패를 만들었다(참조 왕하 20: 13=사 39: 2)

또한 대하 32장 6-8절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군대 지휘관(מִלְחָמָה וְיָמָּ שָׂרֵי מִלְחָמָה)을 백성들 위에 세우고, 또 성문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군 기강을 강화시키는 연설을 하였다. 이런 보도에 근거하여 히스기야 왕이 군대의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앗시리아가 유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의 목록에서 말을 발견한다.¹³⁾ 이 보도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직업)군인들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은 말과 마차로 무장한 엘리트 부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의 역사적 신뢰성이 의심된다. 왕하 18장 23절(=사 36: 8)의 랍사케 연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앗시리아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¹⁴⁾에서 '유다에는 전차 부대나 기마대가 없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만약 히스기야가 말과 마차로 무장한 엘리트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주력 부대가 아니라, 왕의 거주지인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던 근위대였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주력 군대는 전적으로 각 지역에서 징집한 국민 부대였다. 왕하 18장 26, 36절에서는 앗시리아의 지배를 반대하는 기원전 705-701년의 저항 운동에 전 백성들이 참여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된다.

11) 신명기 개혁운동 집단은 아하스 왕 시대에 형성되어, 히스기야 왕 시대에서 요시아 왕의 시대에까지 줄곧 활동했다.

12) 참조 C. Schedl, "Textkritische Bemerkungen zu den Synchronismen der Könige von Israel und Juda," V7 12 (1962), 88-119쪽, 특히 114쪽. E. Vogt, Der Aufstand Hiskias, 27-29쪽.

13) TUAT Bd. I, 390쪽. 이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전하고 있지 않다. 이 아카디아어 본문에 대한 번역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참조 E. Vogt, Der Aufstand Hiskias, 65-67쪽.

14) 이는 랍사케 제 1연설에 속한다(왕하 18: 19b-25).

“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썬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청하였다: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원컨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왕하 18: 26).

예루살렘에 당도한 앗시리아의 장군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 위에 있는 유다의 관리들과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앗시리아의 관리 랍사게 사이의 짧은 대화가 이어진다(왕하 18: 26-27). 그 대화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랍사게에게 성 위에 있는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성 위에 있는 백성을 히브리어 **בָּכָר**(압/백성)으로 지칭하였다. 히브리어 **בָּכָר**은 종종 병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적의 침략에 앞서 군대로 참여하였다. 이 점은 모든 백성이 신명기 개혁운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대화에 이어 랍사게는 두 번째 연설(왕하 18: 28-35)을 한다. 이 연설에서도 백성들이 참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랍사게 제 2연설 가운데 앗시리아 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메시지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말은 허위이므로 믿지 말 것과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31b}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³²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왕하 18: 31bβ-32a).

랍사게의 이 연설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랍사게는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과 직접 협상한다. 앗시리아 식민지 통치 방식의 하나인 주민들의 (강제)이주이다. 대개는 지도층 인사를 먼 이국으로 이주시켜 반란을 도모할 수 없게 하며, 또한 그들이 살았던 땅에 역시 먼 이방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정착시킨다. 왕하 18장 32a절에서도 이러한 이주 정책이 언급되어 있다. 다만 차이점은 성벽 위에 있는 군인들은 지도층 인사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다. 아마도 일반 백성들 중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 땅이 배분될 것을 약속한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상당히 매력적인 약속인 것처럼 제안한다. 새로이 배분 받게 될 땅은 각자의 집에 우물을 갖춘 물이 풍부한 지방의 땅임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땅에서 곡식, 포도와 무화과를 재배하여 자신이 즐길 수 있으며, 그리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임을 강조한다(왕하 18: 32a).

왕하 18장 28-35절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회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랍사케는 프로파간다 연설을 통해 성벽 방어선에 위치한 백성들과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 님루드 편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앗시리아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반란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할 경우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 왔다.

이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왕하 18: 36)고 보도한다.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왕하 18: 36).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 즉, 랍사케 연설의 청중인 남자들은 유다 전국에 거주하다가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동원된 자들이다. 이들은 결코 직업적인 군인들이 아니고, 전쟁이 발발하여 징집된 국민 부대이다.

히스기야 왕이 의도적으로 직업 군인들에 의한 엘리트 부대를 회피하고, 오직 징집에 의한 국민 부대를 주장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역사적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국민 부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국민이 모두 참여한 신명기 개혁운동에서, 국민적 총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도층 인사의 지배 권력이 축소되었다.

2) 요시아 왕 시절의 군대 상황과 군대 개혁

요시아 왕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둘 있다. 첫째는 암 하아레츠에 의해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점이다.

(1) 암 하아레츠외 요시아 왕

암 하아레츠는 당시의 국내 정치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외세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졌다.¹⁵⁾ 외세로부터의 독립은 소 자유 농민으로서의 암 하아레츠에게는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였다.¹⁶⁾ 반 앓시리아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조공과 병역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되었던 짐을 제거하는 일이다. 바로 이러한 짐들은 암 하아레츠를 친 앓시리아 정책을 고수하려는 궁중 관리들과의 강한 긴장과 대립으로 몰아 넣었다.¹⁷⁾

확실히 요시아 왕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반 앓시리아 정책을 수행했다. 국민들과 그 대표자들은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 내내 그의 편에 섰다. 이로써 요시아 왕의 개혁을 위한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 암 하아레츠에 의해 요시아는 왕이 되었다는 점에서 요시아 왕은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요시아 왕은 앓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향한 정책을 수행했고, 동시에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정책을 펼쳤다.

둘째,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암 하아레츠들(민중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왕하 23: 30). 이 점은 요시아 왕 등장 이전부터 요시아 왕의 사후에까지 정치 무대에 존재해 있었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요시아 왕의 군대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므낏세 왕의 통치 말기, 유다는 앓시리아에 의한 이집트 정복에 보조 부대로 참여하게 되었다. 앓시리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유다는 국경과 군 체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투에 므낏세 왕은 엘리트 부대가 아니라, 국민들을 징집하여 참전시켰다. 웃시아 왕과 그의 아들 요담 왕 이래로 유다는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를 갖지 못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이 엘리트 부대를 다시 창설했더라도 그 규모는 근위대 수준이었을 것이다.

15) K. Galling, Staatsverfassung, 33쪽.

16) E. Würthwein, 'amm ha'arez, 33쪽. 왕하 23: 33, 35에 따르면 바로 네코는 유다 땅에 조공을 거둬 들였다. 이를 위해 유다 왕 요야킴은 땅을 평가하여 조공을 위한 몫을 부가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암 하아레츠는 확실히 조공의 짐을 저야 했던 신분이다. 뷔르트바인은 요야킴 사건의 특이성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즉, 암 하아레츠는 일반적으로 조공의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궁중 관리들은 조공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웠다(36쪽).

17) E. Würthwein, 'amm ha'arez, 33쪽.

어쨌든 기원전 701년 이래로 유다는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를 갖지 못했으며, 또 이를 재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했다.

앗시리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수행된 군 무장과 군 체제 정비에는 결코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가 아니라, 백성들을 징집한 국민 부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 참여한 백성들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힘을 얻게 되었으며, 지도층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요시아 시대(정확히 말하여 기원전 701년 사건 이후)에는 국민 모병제에 의하여 소집된 군대가 정규 군대가 되었다.¹⁸⁾ 따라서 요시아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자와 함께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요시아 왕의 군대 개혁의 역사적 배경

앗시리아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앗시리아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아직 부상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력의 공백을 이용하여 유다 왕 요시아(기원전 639-609년)는 독립을 쟁취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세계-정치적 상황은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국내 정책 및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래 독자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며, 요시아 왕 시절에야 비로소 제국 형성을 위해 군 조직을 갖추며 무장할 수 있었다. 요시아 왕의 권력이 상승되면서 군사력도 이에 맞추어 강화되었다.¹⁹⁾

그럼에도 요시아 왕의 개혁에서는 제국주의적 정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유다로 하여금 제국 정책을 펴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 요시아 왕의 개혁 활동은 남 왕국 유다에 국한되며, 이전 북 왕국 이스라엘 엘에까지 미치지 않았다.²⁰⁾ 왕의 도장/직인(러멜레크 직인)이 유다 지역에서만 약 800개 정도 발견되었으나, 므깃도나 벤엘에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²¹⁾

18) E. Junge, Heerwesen, 36쪽. 최근에 M. Clauss, Geschichte, 163쪽.

19) E. Junge, *Der Wiederaufbau des Heerwesens des Reiches Juda unter Josia* (BWANT 75), (Stuttgart 1937).

20) 참조 B. Alfrink, "Die Schlacht bei Megiddo und der Tod Josias (609)," *Bib* 15 (1934), 173-184쪽.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150쪽.

21) 왕하 23장 15절의 보도와 함께 개혁보도가 북왕국에까지 확장되었으며, 또한 왕하 23

(3) 군대 조직의 구조와 신명기 개혁운동

국가 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이 가야할 길은 오직 한 가지, 군대를 다시 재건하는 것뿐이었다. 즉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들을 모두 군 복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군대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로 여겨 모든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개는 외적 강제 없이 온 국민들을 군 복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전 국민들을 군 복무에 임하게 하는 일이 정당하게 되며, 그래서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신 20장 1-9절과 삼상 8장 11절 이하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들이 군 복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을 군 복무에 소집한 것은 히스기야, 므낫세 및 요시아 왕 시절에도 있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중, 전쟁이 발생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군 복무에 소집했던 것 같다.²²⁾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한 것에 대한 증거는 “הַמְצַבֵּא אֶת־עַם הָאָרֶץ”(하마츠비 에트 암 하아레츠/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왕하 25: 19=렘 52: 25)²³⁾ 라는 관리의 직책 명칭에서 알 수 있다. אֶת־עַם הָאָרֶץ(암 하아레츠/백성)가 주로 자유 농민들로 구성되는 전 국민을 의미한다면, 유다의 자유 농민들을 군 복무로 소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왕하 25장 19절이 요시아 왕 시절 이후의 시간에 속하는 보도라 할지라도, 동일한 경우를 요시아 왕 시절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²⁴⁾

렘 40장 7절 이하에서는 유사한 표현 “שָׂרֵי הַתְּלָיִים”(샤레 하하야림/용사들

장 19-20절과 함께 개혁지역이 전 북왕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장에는 후대의 소망상의 담겨져 있다.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112-117쪽.

요시아 왕 시절에 일어난 것으로 보도된 이러한 구절들에서 벨엘 성전을 반대하는 논쟁적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이 논쟁적 관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후에 벨엘 성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야훼신앙을 가진 많은 신앙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대안점이 되었거나 유혹의 근거점이 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논쟁적 관점은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의 강한 대립과 에스라-느헤미야 시절의 엄격한 분리를 암시한다.

22) E. Junge, *Heerwesen*, 28-37쪽. 그는 전국민에게 군복무를 위해 소집하는 것이 요시아 왕 시절에 비로소 처음 시행된 것으로 보았다(33쪽).

23) 이 직책의 명칭을 일회적 사건에서 나온 표현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명칭은 국가의 공식적인 직책의 명칭이며 정규 국가의 기구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역사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 보도들은 포로기나 포로후기 시대의 상황보다는 포로기 이전 시대의 상황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24) E. Junge, *Heerwesen*, 31쪽.

의 지휘관)과 “그들의 **אֲנָשֵׁי**”(아나심/남자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군 복무에 수행중인 자들이다. 유다 총독 그달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일상 업무, 즉 농업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다. “용사들의 지휘관과 그들의 남자들”은 용병들이나 직업적 군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토지와 땅을 가진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원래 국민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군복무를 위해 소집된 암 하아레츠(백성)의 일부였다.²⁵⁾

또 다른 문헌적 증거들을 렘 34장과 겔 22장 29절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렘 34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왕이 고위 관리들과 계약을 맺고 소유한 종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하였다. 이 때 계약에 참여한 고위 관리들의 신분에 속하는 자들은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אֲנָשֵׁי** 사림)²⁶⁾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אֲנָשֵׁי אֶרֶץ** 암 하아레츠)이다. 특이한 점은 암 하아레츠가 고위 관리의 목록에 속했으며, 그들은 노예를 소유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요시아 왕 이래로 암 하아레츠의 지위가 점차 높아졌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새로이 얻게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고위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⁷⁾

겔 22장 23-3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의 죄를 열거한다. 고위 관리들의 범주에는 “선지자(겔 22: 25, 28), 제사장(겔 22: 26), 고관들(겔 22: 27)과 이 땅의 백성(겔 22: 29)’이 속한다. 여기에서도 암 하아레츠가 고위 관리의 목록에 속하여, 왕조 시대 말기 유다 사회에서 그들의 변화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겔 22장 29절에서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고 기록한다. 그들은 새로이 얻게된 지위(혹은 정치적 권력)를 그들의 휘하에 있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오용하였다.²⁸⁾

위에서 언급된 전승들에서는 극도의 위기의 순간에 전 국민들이 군 복무에 임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직업 군인이나 용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말이나 전차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²⁹⁾ 요시아

25) E. Junge, Heerwesen, 32-33쪽.

26) 한글번역에서는 “내시들”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바른 번역으로 보기 어렵다.

27) E. Würthwein, 'Amm ha'arez, 39ff.쪽.

28) E. Würthwein, 'Amm ha'arez, 41쪽.

29) 응에(E. Junge)는 말과 전차로 무장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말과 전차는 유다로부터 조달될 수 없는 엄청난 고가의 전투장비에 속했기 때문이다. 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보다 정확히는 기원전 701년 이후로) 일반 백성들을 소집하여 만든 징집 부대가 유다의 정규군이였다.³⁰⁾ 이들은 이전 용병 부대가 갖고 있었던 기능을 새로이 넘겨받아 수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시아 왕 시절에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될 수 있었던 암 하이레츠(백성)는 그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정치적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 밖에 왕조 후기의 다른 전승에서 직업 군대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³¹⁾ 말과 전차에 대해서는 더욱 언급이 없다.³²⁾

대개 왕의 권력은 그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요시아 왕은 그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암 하이레츠와 그 대표자와 신명기 개혁운동 집단 외에는 다른 지지자 집단을 갖지 않았다. 요시아 왕 시절의 군사적 상황에 근거해 볼 때, 암 하이레츠는 요시아 왕의 개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치적 집단으로 그를 보좌했음을 알 수 있다.

4. 신명기 왕의 법(신 17: 16a)의 의미: 군사적 경험과 반성

먼저 말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고고학적으로 말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기원전 6,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다.³³⁾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청동기 중기(기원전 2,150-1,550)에 여리고에서 발굴되었다. 전사들이 죽을 때 함께 매장되었으며, 대부분 쌍을 이룬 형태로 출토되었고, 군인들의 무기와 함께 출토되었다.³⁴⁾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아직 생소한 전쟁 수단이었다. 다윗은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말을 빼앗았다(삼하 8: 4).

말과 전차는 이미 다윗 시대에도 왕자들(압살롬, 아로니아)의 근위 부대에서 볼 수 있었다.³⁵⁾ 이 근위 부대는 결코 군사적 의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다만 정치적 의미만을 갖고 있었다. 이 왕자들은 말과 전차로 잘 무장된

조 E. Junge, Heerwesen, 30쪽.

30) E. Junge, Heerwesen, 36쪽. 최근에는 M. Clauss, Geschichte, 163쪽.

31) Yavne - Yam과 'Arad의 오스트리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립인 직업 군인들이 유다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점은 이들이 유다 왕에게 고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32) E. Junge, 윗글, 30쪽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왕조 말기 유다에서 말과 전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33) 참조 Frankfurter Allgemeine Tageszeitung von 27. 9. 1990.

34) H. Weippert, "Pferd und Streitwagen," BRL, (Tübingen 19772), (Sp. 250-225), 250쪽.

35) 삼하 15장 1절, 삼상 1장 5절을 보라.

근위 부대로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말이 군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솔로몬 이후부터이다.³⁶⁾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시 재정비되었다. 즉 전 지파에서 징집된 국민 부대와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 외에, 전차 부대가 창설되었다. 솔로몬은 전차 부대를 계속 창설하여 예루살렘 왕의 주변이나 국경 도시에 배치했다. 이 도시에 배치된 전차 부대의 과제가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의 공격에 대비한 영토 방위 성격을 가졌다고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중요 과제는 솔로몬에 의해 정복되어, 그의 제국에 합병된 지역을 통제하고, 이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전차 부대는 추측컨대 주력 전투 부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은 이유에는 어떤 격전지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전에서 야전 사령관과 왕(왕이 야전 사령관으로 전투에 참여했을 경우)만이 전차로 무장한다. 이는 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근위대의 전차 부대가 전투에 한 번 투입되었다(왕하 8: 20-22).

앗시리아 왕 살만에세르 3세(기원전 858-824)는 그의 통치 6년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 앗시리아 동맹을 분쇄하기 위하여 출정하였다. 성서에서는 이 동맹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도 가담했다. 왜냐하면 처벌 국가의 목록에 이스라엘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드러진 점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 병력으로 그 전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살만에세르의 모노리트(Monolith) 석비에 따르면, 이천 대의 전차와 일만 명의 병사가 참여했다고 보도한다. 이 숫자는 아마도 과장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인 보도로 볼 수는 없다.³⁷⁾ 동일한 전투에 대한 다른 보도에서는 그 규모를 살만에세르 3세의 모노리트 석비보다 상당히 줄여 보도하였다.³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말과 전차는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로 근위대와 관련되어 있었다. 즉 말과 전차는 전투를 위한 군사

36) 솔로몬 시대에까지 이스라엘은 전차 부대에 의한 전투 경험은 갖지 못했다.

37) 참조 N. Na'aman, "Two Notes on the Monolith Inscription of Shalmaneser III. from Kurkh," *Tel Aviv* 3 (1976), 89-106쪽. 그는 충분한 논거로 이 보도의 역사성을 부인하였다.

38) TUAT Bd. I, 362ff.쪽. 참조 W. Schramm, *Einleitung in die assyrischen Königsinschriften*, 2. Teil (HdO 1. Abt. Erg. Bd. V), (Leiden 1973), 70-105, 특히 87-90쪽.

적 의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가졌었다. 사병에 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배자는 그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탐구로부터 이 금령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금령은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순간에 방어를 위한 무장 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정을 위한 무장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금령은 왕의 군사적 정치적 정책과 엘리트 부대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⁹⁾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다면, 이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 이 금령을 형성시킨 역사적 상황에 대해 사회학적 전망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징집 부대인 보병 부대가 전차 부대의 엘리트 부대에 맞서 있었고, 또 추측컨대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 이 징집 부대가 정치적 권력을 얻었던 때에 이 금령이 형성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금령 배후에서 민중 부대의 정치적인 운동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 운동 없이 이 금령은 결코 형성될 수 없다.⁴⁰⁾

그럼에도 단순히 전쟁 상황이 민중 운동을 일어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 금령의 형성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엘리트 직업 부대에 의한 군사적, 정치적인 불평등에 대한 경험은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자와 그의 엘리트 부대에 대한 비판적 운동을 전개하게 했다. 특히 기원전 8-7세기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체험들은 당시 예언자들(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에게 사회 비판을 하게 했으며, 다른 한편 익명의 신학자들 - 소위 신명기 개혁 운동 집단 - 에게 비판적 민중 운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예언자들이 비판적 정신을 고취시킨 반면, 신명기 신학자들은 비판적 민중 운동을 이끌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이 금령의 형성은 시간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서 요시아 시대 사이에 두어야 한다.

5. 결론

39)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군사 무장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군사력이나 우방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는 야훼 하나님이나 그의 의지에 대한 신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로 상호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참조 렘 21: 27f.; 신 28: 32; 렘 2: 7f.; 5: 17; 7: 9; 30: 12ff.; 호 14: 4; 미 5: 13; 계속하여, 시 20: 8). 이 구절들의 형성 연대를 모두 포로기나 혹은 그 후로 설정하는 것은 아직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사 2장/미 4장에서와 같이, 완전한 비무장화에 대한 요구는 포로 후기에야 비로소 나타난 사상이다.

40) 이 징집부대를 사회학적 성격에 따라 규정한다면 "국민부대"라고 칭할 수 있다.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군대 개혁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국력 향상을 위해 군사력의 증강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군대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의 양성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소집된 국민 부대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국가의 재원의 결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야기된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겪게 되는 군사적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나온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신명기 개혁운동에서는 작지만 강한 민주적 국가를 희망했고, 그 결과 엘리트 부대를 지양하고, 국민 부대를 육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제적 상황은 신명기 개혁운동의 소박한 꿈을 담아내지 못했다. 히스기야 왕은 앗시리아의 강한 군대에 무릎을 꿇었고, 요시야 왕은 애굽의 군대에 의해 전사하였다. 당시 시리아-팔레스타인에는 짧은 시간 동안 힘의 공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한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분명 신명기 개혁운동은 고대 사회에서 꿈꾸기 어려웠던 민주적 사회와 국가 형성을 추구하였다. 신명기 개혁운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를 넘어 세계사에서 전례 없는 혁명적 사유의 열매를 문헌적으로 남겼다. 그러나 신명기 개혁운동은 일종의 국민 운동과 같은 것으로 주로 국내 정치적 상황만을 고려한 협의적 시야를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 참고문헌

- 한 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B&A, 2007), 49-88쪽.
 Alfrink, B., "Die Schlacht bei Megiddo und der Tod Josias (609)," *Bib* 15 (1934), 173-184쪽.
 Frankfurter Allgemeine Tageszeitung von 27. 9. 1990.
 Junge, E., *Der Wiederaufbau des Heerwesens des Reiches Juda unter Josia* (BWANT 75), (Stuttgart, 1937).
 Na'aman, W., "Two Notes on the Monolith Inscription of Shalmaneser III. from Kurkh," *Tel Aviv* 3 (1976), 89-106쪽.
 Schedl, C., "Textkritische Bemerkungen zu den Synchronismen der Könige von Israel und Juda," *VT* 12 (1962), 88-119쪽, 특히 114쪽.
 Schramm, W., *Einleitung in die assyrischen Königsinschriften*, 2. Teil (HdO 1. Abt. Erg. Bd. V), (Leiden, 1973).

Thiel, W., "Soziale Auswirkungen der Herrschaft Salomos," T. Rendtorff(Hg.),
Charisma und Institution, (Gütersloh 1985), 297-314쪽.
TUAT Bd. I, 362ff.쪽.
Weippert, H., "Pferd und Streitwagen," *BRL*, (Tübingen, 1977²), 250-225쪽.

검색어

군사 개혁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말(馬)
국민부대(Heerbann)
직업군인부대
암 하아레츠
왕의 법

투고일: 2010년 12월 31일
심사일: 2010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3일

The Military Reform in the Deuteronomic Movement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ilitary reform in the time of Deuteronomistic movement, when it was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anti-Assyrian influence. It was Josiah particularly reinforced the military capability in the hope of freeing from it. On the other hand, Deut 17:16a narrates that "The king, moreover,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for himself...", insinuating negative intention against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opposing ideas and, historically, the structure of the military in the time of Josiah.

Here is the outline of the Israelite military briefly introduced. Largely the infantry constituted the military along with some professional units and armed chariots units of commanders.

The historical context and military reform in the time of Hezekiah and Josiah is also examined. Hezekiah's was nation-wide due to the anti-Assyrian and independent movement, improving military defence and weaponry system. The main forces was composed of by the infantry recruited from all over the nation, and the guard troops by horses and chariots.

Josiah had to rebuild the military, dismantled before, to free nation from the Assyrian authority. The shortage of the nation's resources only made it possible to recruit national infantry mainly with the common people. Probably the prominence of 'am-haarets' in the Josiah's years' political stage must have shaped the military structure as well. Since he was politically dependent to 'am-haarets', not to the military power of the elite, Josiah was not able to do away with them.

Therefore it is clear what the prohibitory decree against the military reinforcement in Deut 17:16a meant to say. It prohibits inequality in the military and political realm, which could be caused by the professional elites.

Keywords

military reform
Hezekiah
Josiah
horses
militia
professional soldiers
chariots unit
am-haarets
king's law